



2026 VISION

# 혼혼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 가정

#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 말씀

여러분, 잘못을 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 거짓말했을 때,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는 이미 틀렸어”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있고, 말씀보다 스마트폰을 더 붙들 때도 있고, 친구들 앞에서 믿음 없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사무엘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기, 성적, 인정, 재미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청소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